

## 대전소방 성탄절과 연말

## 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웅)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는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연말연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대전소방본부와 5개 소방서, 27개 119안전센터, 5개 구조대, 5개 구급대 등 모든 소방관서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방 장비는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한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순찰과 화재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행사장에는 소방차량과 인력을 전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119 신고 증가에 대비해 구급상환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현황을 사전에 파악관리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이채봉 기자

## 신유빈-당진, 함께하는

## 전국 유소년 탁구 축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신유빈과 당진시가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유빈과 당진시가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축제'는 올해로 2화째를 맞는 행사로, 당진시 해나루쌀 홍보모델인 신유빈 선수와 탁구를 사랑하는 전국의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어울리며 스포츠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다. 27일 첫날 개회식에는 신유빈 선수가 참석해 행사의 분위기를 한 층 띄울 예정이다. 신유빈 선수는 2019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복식 금메달, 2024년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및 여자단체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탁구 선수다.

특히 최근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왕중왕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축제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더 큰 감동과 영감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에는 전국 초등학교 1~5학년 탁구 선수 200여 명과 학부모 및 관계자 200여 명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해 탁구를 향한 꿈과 열정을 나눌 예정이다. 첫날에는 예선 리그전, 둘째 날에는 결선 토너먼트가 펼쳐진다. 탁구협회 권세웅 회장은 "승패를 넘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모두가 탁구의 즐거움과 스포츠 정신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충남 '가로림만' 해양생태거점화 속도

민관협력 강화·세계자연유산 등재·1200억 원 규모 예타 통과에 집중



충남도가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을 국내를 대표하는 해양생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주요 추진계획으로 △민관협력 강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 1200억원 규모 예타 통과를 제시했다.

이어 "가로림만은 지난 2일 해수부의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발표 이후 5일 천안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도 충남의 주요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됐다"며 "정

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충청권은 물론 전국민이 즐겨찾는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데도 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관협력 강화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과 공식적인 다주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영리 국제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협업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생태보전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자연기금과는 내년 협약을 시작으로 △해양보호생물인 잠박이물벌 모니터링 △폐업전 활용 보전사업 △해

양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공동사업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해양생태거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추진한다.

가로림만을 포함한 4개 지자체가 등재를 신청했으며, 가로림만은 경기만 남부까지 세계자연유산을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정원 지정과 더불어 전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해양생태거점으로써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국가차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 속에 잠박이물벌 등 지역 해양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해 재도전한다. 도는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해양생태복원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왔다.

이현진 기자

#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4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공동성명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안 통과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굳건히

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국회와 정부의 3특 자치권 강화 및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정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쟁점적인 특별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며 "특별법은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성장동력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회의 이후 열린 '지방분권 실현, 특별자치 포럼'에서는 이

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행정수도-5국 3특시대, 특별자치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자치 강화방안과 포괄적 권한이양방식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 '주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 의회가 만드는 변화' 세션에서는 권자경 국립강릉원주대 교수가 주민주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의 2025년 1월 1일자로 맡았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직은 2026년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어받는다.

이채봉 기자

## 옛 청풍교 청풍호 바람달정원으로

청풍호의 아름다운 자연미, 정원 감성 시적으로 담아내

충청북도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옛 청풍교의 공식 명칭을 '청풍호 바람달정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충북도는 청풍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명칭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총 5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청풍교 정원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다.

접수된 명칭 제안은 전문가 심사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청풍호 바람달정원'이 최종 명칭으로 선정됐다.

새 이름인 '청풍호 바람달정원'은 '바람'과 '달'이라는 자연적 이미지를 결합해 청풍호반의 수려한 경관과 정원이 지닌 감성적 풍경을 시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바람이 스치고 달빛이 머무는 호수 위 다리정원이라는 공간적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며, 청풍명월의 지역 이미지를 우리말의 서정적 언

어로 품격있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선미 국장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청풍호 바람달정원'은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정서적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명칭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풍교 정원화사업을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2012년 청풍대교 완공 이후 사업이 중단된 옛 청풍교를 대상으로, '청풍명월'의 의미와 형상을 반영한 조경·조형 요소를 도입하는 정원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통해 충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화합과 평안 '유천동 산신제' 봉행



대전 중구 유천1동(동장 김성아)은 산신제보존회(회장 김용덕) 주관으로 보문산 산신에게 마을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하며 '제28회 유천동 산신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유천동 산신제는 45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유산으로, 해마다 동짓달 초사흘(음력 11월 3일)에 유천동 산제당에서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산신령에게 기원하던 제례로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의 큰 화합 행사이다. 이번 공개행사에는 유천1·2동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으로 제례의 시작을 알리고, 산신제 보존회원 및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산신제 소개와 봉행, 헌주와 음복 순으로 제를 지냈다. 제례가 끝난 뒤에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마을 잔치가 펼쳐졌다.

김용덕 회장은 "그동안 산신제 준비

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통민속문화 유산으로서 산신제를 계승·보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천동 산신제'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전승되어 온 유천동 고유의 전통제례로서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1997년 시 무형문화유산 제4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중구 태평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간 행정 교류 ▲지역 특산물·농산물 직거래 등 경제교류 활성화 ▲문화예술 행사 추진 경험 공유 ▲복지 데이터 교환 및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채봉 기자

시통일  
시팔달

반도체 중심도시

오산